

포로 되어 있다가 돌아온 이들을 정화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성경: 스 9:1-10:44, 느 13:23-30상, 마 5:8, 계 21:18하, 21하, 22:4

I. 주님의 회복은 유일하며, 반드시 어떤 혼합도 없이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단일하며 거룩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화하는 일을 수행하는 에스라들과 느헤미야들이 필요하다. 주님의 회복의 모든 단계에 정화가 필요하다.

A. 에스라는 '거룩한 씨'를 이교도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되게 함으로써 회복을 정화했다 — 스 9:1-10:44.

1.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교도 아내를 두어 이러한 혼합에서부터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혼합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예표이다.

2. 주님의 회복 안에는 '거룩한 씨'를 이교도적인 모든 것에서 분별하기 위해 정화가 필요하다 — 스 9:1-2.

a.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씨이다. 우리는 거룩한 씨가 어떤 이교도적인 것과도 결코 섞이지 않도록 매우 순수해야 한다.

b. 회복이 거룩할 때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볼 것이다 — 겔 34:26.

B. 우리는 집을 건축한 후에 (에스라의 인도 직분 아래서 볼 수 있는) 정화가 필요하고, 성을 건축한 후에 (느헤미야의 절대성에서 볼 수 있는) 다시 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 스 9:1-2, 10:1-44, 느 13:1-30상.

C.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우리는 모든 혼합에서 철저히 정화되어야 한다. 속된 것이나 주님의 회복의 하늘에 속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이든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 — 딤후 2:19-22.

II. 바빌론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우상들에 속한 것들이 혼합된 것이며, 바빌론의 원칙은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고 육체에 속한 것들을 그 영께 속한 것들과 혼합하는 것이다 — 대하 36:6-7, 스 1:11, 계 17:3-5.

A. 바빌론의 일부인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며, 바빌론적인 것은 무엇이든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킬 수 있는 입지를 준다 — 수 7:1-21.

B.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바빌론의 원칙을 더 미워하신다. 우리 안에 있는 바빌론적인 모든 것을 심판할 때에만, 우리는 우리 역시 바빌론의 원칙을 미워한다고 고백할 수 있다.

III. 사도행전 21장과 야고보서에는 혼합이 있다. 야고보는 구약과 신약을, 새 시대와 옛 시대를, 하나님의 새 백성과 옛 백성을, 새사람과 옛사람을 혼합하였다 — 약 1:1, 17-18, 2:1-4, 8-12, 3:2, 4:11-12, 5:10-11.

- A. 사도행전 21장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끔찍한 혼합을 폭로해 준다. 유대인 믿는 이들은 여전히 모세의 율법을 지켰고, 구약 시대 안에 머물며 유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시대에 뒤진 구약 경륜을 혼합하였다 — 행 21:18-21.
- B. 유대인 믿는 이들은 율법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것, 은혜 시대를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두 시대의 구별을 무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시대적인 행정을 거스르며 그리스도의 표현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계획에 큰 손상을 입히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 요 1:16-17, 계 2:9.
- C. 율법은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 사람에게 요구를 한다. 하지만 은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이루게 한다. 은혜는 사람이 누린 하나님이다 — 요 1:16-17, 갈 6:18, 고후 13:14, 12:9, 벰전 4:10, 엡 3:2, 4:29, 6:24.

IV.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큰 문제는 자아와 영의 혼합이다 — 히 4:12.

- A. 이러한 혼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자격을 잃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 안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많은 혼합이 있기 때문이다 — 딤후 1:3.
- B.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영은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는다. 그러나 영이 나오면서 혼과 몸을 통과할 때 더러움과 부패에 오염될 수 있다 — 고후 7:1.
- C. 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동기들과 의도들, 여러 혼합들을 처리하는 것을 강조한다 — 살전 5:23, 딤후 1:7.

V. 우리는 마음과 양심과 영이 순수해야 한다.

- A.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 마 5:8, 욥 42:5, 계 22:4.
 - 1. 마음이 순수하다는 것은 목적이 단일한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 — 고전 10:31.
 - 2. 순수한 마음은 주님을 유일한 목표로 취하는 마음이다 — 딤펢전 1:5, 딤후 2:22, 시 73:1.
 - 3.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동일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조성되도록 하나님의 요소와 생명과 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봄으로써 변화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의 옛 요소는 배출되기 때문이다 — 고후 3:18.
 - 4.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분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권위로 그분을 대표하게 된다 — 요일 3:1-3, 창 1:26.
 - 5.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하며 주님의 회복을 위해 단일해야 한다. 오직 이럴 때에만 우리는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딤펢전 1:5, 딤후 2:22, 벰전 1:22.
- B. 우리는 선한 양심뿐 아니라 순수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 행 23:1, 24:16, 딤펢전 3:9, 딤후 1:3.
 - 1. 선한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양심이다 — 행 23:1, 24:16.
 - 2. 순수한 양심은 혼합된 것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된 양심이다. 이러한 양심은 바울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을 구한다고 증언한다 — 딤후 1:3.

C.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첫째 자격 조건은 영의 순수함이다 — 고후 6:4상, 6.

1.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다(고후 7:1). 순수함은 인도 직분의 전제 조건이고, 우리의 봉사의 기본 조건이다(답전 3:9, 1:5). 혼합이라는 문제는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있는 가장 큰 문제이다. 불순함은 자주 오해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답후 1:3, 답전 3:9, 딛 1:15).
2.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모든 혼합을 철저히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다른 이들에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3.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순수해야 한다 — 고후 6:4상, 6.

VI. 새 예루살렘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다 — 계 21:18하, 21하.

- A.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한다. 성이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성이 신성한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과 신성한 본성이 그 성의 요소라는 것을 가리킨다 — 계 21:18하.
- B. 길과 성을 구성하는 순금은 맑은 유리와 같은데, 이것은 온 성이 투명하며 불투명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계 21:21하.
 1.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의 유일한 길로 취한다면, 어떠한 혼합도 없이 순수할 것이고 어떠한 불투명함도 없이 투명할 것이다.
 2.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을 주입받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적셔진다면, 우리의 내적 존재는 투명하고 수정처럼 맑게 될 것이다 — 고후 3:8-9, 18.
- C. 우리가 참된 교회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교회 자체가 순수한 금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전적으로 신성한 본성에 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우리를 정화하고 순수하게 하는 십자가의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 계 1:11, 20.
- D. 변절한 기독교계와 진정한 교회의 차이는 바로, 전자는 혼합이고 후자는 순수하다는 것이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처럼 어떤 혼합도 없이 수정처럼 맑아야 한다 — 계 22:1.